August Konkel 박사, 역대기, 세션 19,
약속의 보존

© 2024 거스 콘켈(Gus Konkel)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역대기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August Konkel입니다. 19회 약속의 보존입니다.

여호사밧의 통치는 암몬, 모압, 에돔 군대를 패배시키면서 매우 긍정적인 면으로 끝났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는 더 부정적인 면이 있었는데, 이는 그의 아들의 통치에 대한 기록에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여호사밧과 북방 왕 아합 사이에 동맹이 있었고 그 동맹의 결과로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 동맹의 일부였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연대기 작가에 의해 지식으로 가정되지만 여호람의 이야기에 올 때 우리는 북쪽과의 동맹이 다윗의 모든 후손을 왕위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과 매우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통치에 관해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 점을 피하지 않습니다. 아합의 아들도 여호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는 같은 이름이 붙여진 관행이었으며, 이는 두 왕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표시입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더 강력한 국가였고, 여호사밧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는 것은 일종의 이치에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매우 부정적이고 나쁜 일로서 역대기 기자가 여호사밧의 통치를 제시하는 방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여호람의 통치를 반영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람 통치에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이세벨의 딸인 왕비 아달랴에 의한 왕족의 숙청이다.

우리는 또한 에돔의 정복을 더 자세히 봅니다. 다윗이 에돔을 이스라엘 제국의 일부로 데려왔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에돔은 항상 그 통제에 저항했고 자신의 왕자와 통치자가 이스라엘과 독립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데 성공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따라서 여호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마도 여기에 북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동맹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돔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다시 그 항구, 즉 에시온게벨에 있는 매우 중요한 선적 중심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보낸 끔찍한 편지에는 여호람의 부정적인 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내용 중 하나는 엘리사가 여호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열왕기서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사밧 통치 기간에 엘리사가 하늘로 승천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이것이 즉각적인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

열왕기하 2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3장에서는 모압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을 벌이는 사람은 여호사밧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 전쟁 중에 엘리사가 여전히 참석하여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끔찍한 편지를 보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표현되는 연대기 체계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연대기적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좋은 이유로 동시에 두 명의 왕이 통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왕은 자신이 통치하는 동안 자신의 아들을 공동 섭정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경우 그 이유는 아마도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이때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 여호람은 엘리사가 아직 살아 있을 때 이미 여호사밧에 의해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엘리사는 모압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여호람에게 그가 그의 어머니 아달랴의 길을 따르고 북방의 풍습을 유다에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어긋나는 방식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가 경험하는 것은 블레셋과 아랍의 습격이며, 이는 그의 통치와 제국이 쇠퇴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통치는 아쉽게도 여호람의 통치는 잘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아하시야의 통치로 이끈다. 그는 여호사밧의 아들이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아들이니라. 그는 단지 1년 동안 통치하며 하사엘에 맞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는다.

그리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받은 상처를 회복하려고 애쓰는 아합을 만나러 갔다가 죽임을 당하는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옴니, 아합, 그리고 그의 아들들 여호람과 아하시야의 후손들의 통치에 대한 영향력을 개입하고 종식시키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예후에게 임명을 받은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불과 1년 만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땅에서 다윗의 자손에 대한 위협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북이 남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왕위 계승자를 모두 제거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 주듯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고 다윗을 위해 등불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등불, 곧 다윗의 집을 보존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그 이야기가 어떻게 계속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역대기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August Konkel입니다. 19회 약속의 보존입니다.